

초청강연 논문 I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개선 방안

-시장지향적인 접근-

노영화 박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개선방안

- 시장지향적인 접근-

노영화

한국소비자보호원

I. 서론

인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면 식생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식생활은 인간의 생명유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병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1977년에 미국 상원의 '영양특별위원회'는 세계적인 권위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표하여 전세계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양상태도 비만과 질병구조의 변화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1995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섭취량은 식물성 식품의 섭취가 감소하는 반면,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증가에 따라서 심장질환, 고혈압 등 관련 질환의 발생을 우려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들어 국민들에게 비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1995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과체중의 지표가 되는 BMI(신체중량지수) 25 이상이 인구의 20.5%나 되며, 50-59세 여자의 경우는 평균 BMI가 24.2가 될 정도로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발생정도는 1950년-60년대의 감염성 질병에서 1970년대 이후부터는 암(1위), 뇌혈관질환(2위), 심장질환(4위), 고혈압(5위) 등이 사망 원인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질병발생의 원인이 영양부족에서 영양과잉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비만과 성인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유도과 식품의 영양정보 제공에 대한 수단으로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식품 영양표시제도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이용주체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market-driven)인 개선방안의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II.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의의와 운영현황

1.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의의

식품 영양표시제도는 “식품에 영양성분, 영양소합량 등의 영양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현명한 식품선택을 돕는 제도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생활개선과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시급히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식품 영양표시가 제공하는 영양정보는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영양정보표시(nutrition information)는 제품이 가지는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영양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소비자들은 영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비교의 기준으로 '1일 영

양권장량'과의 대비율(%)을 표시하게 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영양소함량 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로서, '무가당' '저칼로리'와 같이 식품의 특정 영양소의 함량정도를 강조하여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손쉬운 식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건강강조 표시(health claim)는 식품의 질병 또는 건강과 관련된 상태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의 건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건강강조 표시는 허위·과장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그 부작용이 크다.

2. 주요 국가의 운영현황

1) 운영방식

식품 영양표시제도는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197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1994년부터 강제표시(mandatory labeling)를 시행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의 대부분의 국가는 임의 표시(voluntary labeling)로 실시중이나 기업의 참여가 높다. 외국에서는 임의표시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참여가 높은 이유는 영양표시가 된 제품이 보다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는 58%의 소비자가 항상 영양표시를 확인하여 식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소비자들은 식품구매를 할 경우에 71%가 영양표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식품 영양표시가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이 규정됨으로써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도부터는 축산물은 농림부로 이관되어 관장되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다.

2) 표시내용의 비교

가. 표시방식

미국 등에서는 제품포장에 영양정보를 일정한 양식(panel)과 위치를 지정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식별을 돕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위치와 규격이 없이 표시되고 있다.

나. 표시대상 영양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양표시를 하게 될 경우에, 식품에 표시하는 영양소를 의무표시 영양소와 임의 표시 영양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무표시 영양소는 미국은 14종, 일본은 5종, 우리나라는 5종(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영양소의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표시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무표시 영양소는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다. 표시단위

영양함량의 표시단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회분 식사량을 의미하는 '1인 분량'(serving size)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표시단위로 100g/ml당 또는 1인 분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식별하기 좋도록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 컵' '반 스푼'과 같은 '1인 분량'으로 통일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인분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라. 영양함량의 허용오차

미국, 일본 등에서는 영양소함량의 표시량과 실제량간의 허용 오차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허용 오차범위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때문에 실제량보다 영양함량을 축소하여 표시할 수가 있다. 이러한 표시는 결국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영양분을 과다 섭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마.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영양소함량 강조표시를 할 경우에는 코덱스, 일본 등은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당류, 나트륨 등 다양한 영양소에 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무열량, 무포화지방, 무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바. 건강강조 표시

현재 국제적으로는 미국만이 건강강조 표시를 실시중인데, 미국은 '나트륨과 고혈압', '칼슘과 골다공증' 등 10개의 대상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가공식품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에는 질병에 대한 효과가 아닌 일반적인 건강증진에 관한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표2-1>

주요 국가의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운영현황

구분	한국	코덱스	미국	캐나다	일본
필수표시 영양소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영양강조 표시된 영양소	열량, 지방,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식이섬유, 당류,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고도 불포화지방산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임의표시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당류, 지방산류, 콜레스테롤	총 당질의 양, 전분, 기타 탄수화물, 식이섬유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무기질	포화지방 근거 열량, 스테아릭산, 다가/단일 불포화지방산, 칼륨, 가용성 섬유소, 불용성 섬유소, 당알콜, 기타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지방산류
표시단위량	· 100g/ml당 또는 1인 분량당 · 제품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인 경우 1포장당	· 1인 분량	· 1인 분량	· 1인 분량	· 100g 또는 100ml 또는 1식분, 1포장 단위
허용오차 범위	규정없음	규정있음	1, 2군으로 나누어 허용함	규정있음	영양소별로 나누어 오차범위 설정

III. 우리나라의 식품 영양표시실태

1. 조사방법

우리나라에 시판중인 일반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경인지역의 일반 소매점(슈퍼, 백화점, 편의점 등)에 유통중인 15개군의 가공식품 1,238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미리 작성한 조사표를 이용하여 영양표시 여부, 영양함량 강조표시, 건강강조 표시, 1일 영양권장량의 표시상태를 조사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 조사결과

1) 개요

시중에 시판중인 식품 1,238개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품들의 영양성분 표시율은 10.3%, 영양소함량 강조표시율은 12.5%, 건강효과표시율은 0.9%, 1일 영양권장량 표시율은 5.4%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3-1> 식품의 각 영양표시 유형별 표시현황

구분	영양성분 표시	함량강조 표시	건강강조 표시	1일권장량 표시율
조사 식품수	1,238	1,238	1,238	1,238
표시된 식품 수	127	155	11	67
표시율	10.3%	12.5%	0.9%	5.4%

2)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실태

식품들의 전체적인 영양성분 표시율은 10.3%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 영양표시의 여러 유형중에서 영양성분 표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식품 영양표시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들의 영양성분 표시상태를 제품군별로 살펴 보면, 영양성분표시는 유가공품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조미식품류가 19.2%, 면류가 19.0%, 과자류 15.8%, 당류가 10%, 청량음료류가 7.6%, 어육가공류가 3.9%, 다류가 3.4%로 나타나고 있다.

<표3-2> 영양성분 표시실태

구 분	영양성분표시가 된 제품수(%)	해당 제품군수
과자류	26(15.8)	165
유가공품류	28(41.8)	67
아이스크림류	2(3.2)	62
청량음료류	11(7.6)	144
식육류	1(1.7)	60
냉동식품류	1(1.4)	74
어육가공류	3(3.9)	76
다류	3(3.4)	89
면류	16(19.0)	84
당류	3(10.0)	30
식용유지류	0(0.0)	31
조미식품류	32(19.2)	167
김치·절임	0(0.0)	69
통조림·병조림류	1(0.8)	120
합 계	127(10.3)	1,238

IV. 식품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1. 조사방법

식품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유용성의 인식, 식생활습관,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등 인식정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1998년 8월 1일부터 8월15일까지 경인지역의 20세 이상의 성인 61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응답자의 특성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로 보면 남자가 49.3%이며, 여자가 50.7%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73명(28.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40대가 135명(22.1%), 30대가 134명(20.9%), 50대 이상이 27.7%이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가 276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46.2%), 대졸이 227명(38.0%)이며, 중졸이하는 47명(7.7%)이며, 대학원졸은 28명(4.7%)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150-200만원이 19.5%로 가장 많고, 80-120만원이 17.5%이며, 80만원 미만인 16.5%,

200-250만원이 12.8%, 300만원이상이 10.6%, 250-300만원이 9.5%이었다.

<표4-1>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 분		응답자수	구성비(%)
성별	남	301	49.3
	여	310	50.7
연령	20대	173	28.3
	30대	134	21.9
	40대	135	22.1
	50대	122	20.0
	60대이상	47	7.7
학력	중졸이하	66	11.1
	고졸	276	46.2
	대졸	227	38.0
	대학원졸이상	28	4.7
소득	80만원미만	101	16.5
	80-120만원 미만	107	17.5
	120-150만원 미만	73	11.9
	150-200만원 미만	119	19.5
	200-250만원 미만	78	12.8
	250-300만원 미만	58	9.5
	300만원이상	65	10.6

3. 조사결과에의 분석

1) 소비자의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도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의 여러 유형에 대한 관심도는, 건강효과 표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며(평균 5점 만점에서 3.80),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3.63), 칼로리표시 (3.48), 1일 영양권장량표시 (3.36), 영양성분표시 (3.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은 건강강조표시나 영양함량 강조표시와 같이 간명하고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와 마케팅적인 활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4-2〉 영양표시 유형별 소비자의 관심도

영양표시 유형	영양소 구성표시	영양 함량 강조표시	건강 강조표시	칼로리표시	1일 권장량표시
평 균	3.28	3.63	3.80	3.48	3.36

주: 평균은 매우 관심 있다를 5점, 다소 관심 있다를 4점, 그저 그렇다를 3점, 별로 관심없다를 2점, 전혀 관심
없다를 1점으로 본 것을 가중평균낸 것임.

2) 소비자들의 식품 영양표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소비자들은 식품의 영양표시가 개인의 건강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4.1%의 소비자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는 18.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식품 영양표시제도가 개선여부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4-3〉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의 유용성 인식

항 목	응답자 수	구성비(%)
매우 도움된다	75	12.6
다소 도움된다	248	41.5
그저 그렇다	165	27.0
별로 도움 안된다	89	14.9
전혀 도움 안된다	20	3.4
합 계	597	100.0

3) 소비자들의 적정 칼로리의 섭취정도

소비자들이 평소에 적정 칼로리의 섭취에 대해 실천하는 정도는, 상당수 (59.1%)의 소비자가 평소의 식사시에 적정 칼로리의 섭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식생활습관의 문
제로 지적할 수 있다.

<표4-4> 소비자들의 적정 칼로리섭취에 대한 실천정도

항 목	응답자 수	구성비(%)
매우 신경쓴다	42	6.9
다소 신경쓴다	209	34.0
그저 그렇다	158	25.9
별로 신경을 안쓴다	163	26.7
전혀 신경을 안쓴다	40	6.5
합 계	611	100.0

5) 소비자들의 영양지식 수준

소비자들의 영양지식 수준을 알아본 결과, 1일 권장 칼로리는 5점 만점에서 평균 2.68, 영양권장량은 평균 2.4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소비자들의 영양에 관한 지식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어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상의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반응은 긍정적이거나, 영양지식 수준이 낮고, 평소의 식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4-5> 소비자들의 영양에 관한 지식수준

항 목	1일 권장칼로리	1일 영양권장량
평 균	2.68	2.43

주: 평균은 매우 잘 안다를 5점, 다소 알고 있다를 4점, 그저그렇다를 3점, 별로 모른다는 2점, 전혀 모른다는 1점으로 본 것을 가중평균낸 것임.

V. 식품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

1. 조사방법

식품업체들의 식품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의견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15개군의 식품업체 101개에 대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63개의 식품업체가 회신하였다(회수율 62.4%)

<표5-1> 조사대상 식품업체의 제품군별 분포

제품군	해당 기업수	구성비(%)
과자류	15	24.2
당류	3	4.8
빙과류	2	3.2
유가공품	6	9.7
식육류	2	3.2
식용유지류	1	1.6
어육가공류	1	1.6
다류	7	11.3
통조림·병조림류	2	3.2
면류	2	3.2
청량음료류	8	12.9
김치·절임류	3	4.8
조미식품류	4	6.5
기타	6	9.7
합계	63	100.0

2. 조사결과의 분석

1) 식품 영양표시의 실시이유

식품업체들의 영양표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품의 판매증진이 56%로 가장 많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24%), 기업의 이미지제고 (8%)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식품업체들이 영양표시를 통하여 제품의 판매증진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5-2> 식품 영양표시의 실시이유

실시여부	해당 업체수	구성비(%)
소비자 정보제공	6	24.0
제품의 판매증진	14	56.0
기업의 이미지제고	2	8.0
기 타	3	12.0
합 계	25	100.0

2) 식품 영양표시와 제품의 판매효과

현재 식품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25개의 식품업체중에서 영양표시가 제품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59.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양표시가 제품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표5-3> 식품영양표시와 제품판매와의 관계

항 목	해당 업체수	구성비(%)
많이 도움된다	2	3.2
다소 도움된다	14	56.0
그저 그렇다	7	28.0
별로 도움 안된다	2	8.0
전혀 도움 안된다	0	0.0
합 계	25	100.0

2) 식품 영양표시의 향후 실시계획

식품업체중에서 현재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실시할 계획을 다소/적극적 의사를 가지는 업체는 41.5%로 나타났다. 그반면에, 실시계획을 별로/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는 30.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업체들이 향후에 식품 영양표시를 실시하는데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5-4〉 식품 영양표시의 향후 실시계획

항 목	해당 업체수	구성비(%)
적극 가지고 있다	2	4.9
다소 가지고 있다	15	36.6
그저 그렇다	12	29.3
별로 없다	9	22.0
전혀 없다	3	7.3
합 계	41	100.0

3) 식품 영양표시의 강화계획

현재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중에는 68%의 기업이 동 표시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강화할 계획이 별로 없다는 업체는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 업체들이 식품 영양표시를 실시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표5-5〉 식품업체의 영양표시에 대한 향후 강화여부

항 목	해당 업체수	구성비(%)
적극 가지고 있다	6	24.0
다소 가지고 있다	11	44.0
그저 그렇다	5	20.0
별로 없다	3	12.0
전혀 없다	0	0.0
합 계	25	100.0

4) 식품업체의 영양분석 능력

식품업체의 영양분석 능력은 64%의 업체가 충분하다고 한 반면에, 46%의 업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식품업체는 영세업체가 상당히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5-6> 식품업체의 영양분석 능력

항 목	해당 업체수	구성비(%)
매우 충분하다	14	23.0
충분하다	25	41.0
그저 그렇다	3	4.9
부족하다	14	23.0
매우 부족하다	5	8.2
합 계	61	100.0

5) 식품업체의 식품 영양표시에 따른 애로사항

식품업체의 영양표시 실시상의 어려움은 관련 법규 미비(49.2%)가 가장 많고, 영양성분 분석상의 어려움(36.1%), 소비자반응의 미약(6.6%), 원가상승(4.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7> 식품업체의 영양표시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

애로사항	해당 업체수	구성비(%)
관련 법규미비	30	49.2
영양성분 분석의 어려움	22	36.1
소비자반응의 미약	4	6.6
원가상승	3	4.9
기타	2	3.2
합 계	61	100.0

식품업체들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관련 법규의 미비사항을 식품업체와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영양함량의 허용 오차범위의 미설정, 표시사항의 과다, 무기질 함량기준의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표5-8> 식품업체의 애로사항과 현행 규정

애로사항	현행 규정
열량 표시가 kcal 단위이어서 소비자에게 열량이 과다한 느낌을 준다.	5 kca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함량표시에 허용오차 범위가 설정되어있지 않아 범규 위반의 위험이 있다.	영양함량의 허용오차 범위가 없다.
식품에 표시사항이 과다하다.	식품 표시사항에는 원재료, 허가번호, 제조자, 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많이 있다.
칼슘강화 등의 함량기준이 없다.	무기질 전체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영양표시 상태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식품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은 관심도와 유용성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영양지식 수준이 낮고 식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자들은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발전에 관한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식품 영양표시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는 소비자에게는 표시사항이 알기 쉽게 전달되어야 하며, 건강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표시방법이 필요하다. 사업자에게는 제도참여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며, 영양표시가 마케팅적측면에서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표시사항은 표시대상 영양소의 범위, 표시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의무 표시 영양소로서는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 국한하여 설정되어 있다. 의무표시 영양소는 국민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민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 뇌혈관질환, 고혈압 등이 사망원인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이들 질병과 관련된 영양소를 검토하여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표시방법으로는 영양정보의 표시양식과 표시순위가 알기 쉽게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식품에는 영양정보가 일정한 위치와 양식이 없이 임의로 표시되고 있어 소비자가 알아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영양소의 표시순위가 없어서 건강관련 중요도를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표시양식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영양소의 표시순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양함량 허용 오차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식품업체의 영양분석을 돕기 위해 국·공립 식품연구소 등에서

저렴하게 영양분석을 대행해주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무가당’ ‘저칼로리’와 같은 영양소함량 강조표시는 강조표시된 영양소에 소비자가 현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조표시를 할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 강조표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이므로 제품의 판매증진 효과와 표시에 따른 허위·과장성의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표시의 허위·과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영양표시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밑거름이 되는 소비자의 관심과 영양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영양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도 영양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식품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를 위하여 ‘영양교육을 위한 슈퍼마켓 방문프로그램의 운영’, ‘건강에 유익한 식품코너의 운영’, ‘영양에 관한 포스터게시’ 등과 같이 시장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은 식품 영양표시제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 업계, 학계 등의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 >

권오균 역, 『건강을 지키는 9가지 식사법』, 미국 식품영양위원회 편저, 에디터출판, 1998.
미국상원영양문제특별위원회,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원태진 편역, 형성사, 1995.
문수재, 『영양과 건강 : 현대인의 생활영양』, 신광출판사, 1998.
박영숙 외, 『영양교육과 상담』, 교문사, 1998.
백희영 외, 『한국인의 건강영양조사』, 서울대학교, 1997.
백희영 외, 『한국인의 식생활과 질병』, 서울대학교, 1997.
보건복지부, 『영양과 통계』, 1998.
-----, 『1995년 국민영양조사』, 1996.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초중고생 비만도 조사결과』, 1997.
송병춘·맹원재, 『현대인의 식생활과 건강』, 건국대학교, 1997.
유춘희, 신현희, 정해량, 홍희옥, 『한국인의 식생활과 건강』, 상명대학교, 1997.
오명숙·이미숙·천종희·황인경, 『영양과 식품』, 효일문화사, 1998.
정해량, 『영양표시해설』, 한국식품위생연구원, 1995, p. 5.
재정경제원 조사통계국, 『사망원인 통계연보』, 1966, 1986, 1990.
전국의료보험관리공단, 『피부양자 성인병 검진결과』, 199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보건문제와 대책(Ⅱ)』, 1977.
한국소비자보호원,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1997.

< 국외 >

- 日本 厚生省 食品衛生局, “食品營養 表示 基準 解説”, 日本食品衛生協會, 「食品衛生研究」, 1996년 7월.
日本 總務廳 統計局, 「世界の統計」, 1998.
- 日本 厚生省, 후생백서, 1997
- Bell, D.R. & R. Michael. *Health, Nutrition, and Economic Crises*,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1988.
- Canadian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Canadian Nutrition Labeling: A Call for Reform*, <http://www.cspinet.org/reports/canlabel.htm>.
- Canadian National Institute of Nutrition(NIN), *Tracking Nutrition Trends 1989-1994-1997-Executive Summary*, 1997
-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CAC/GL 2-1985(Rev. 1-1993)
- Farley, Dixie, “Look for ‘Legit’ Health Claims on Food,” *FDA Consumer*, May 1993.
- FDA,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 , *Food Labeling Questions and Answers*, August 1993.
- Health Canada, *Food Labels and the Food Guide*, 1998
(<http://www.hc-sc.gc.ca/main/hppb/nutrition/pube/cfgf/cfgf10.htm>)
- Health Canada,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s*, (<http://www.hcsc.gc.ca/main/hppb/pube/eat/eat05.htm>.)
- Howard, Stern, “Health Food Meets”, *Supermarket Business*, March 1996.
- Kalina, L (1989), “Healthy Choices: A Restaurant Guide for Healthy Eating in Kamloops”(abstract), *Journal of the Canadian Dietetic Association* 50:187.
- P. Kurtzwell, “New Food Label: Good Reading for Good Eating,” *FDA Consumer*, May 1993.
- , “Skimming the Milk Label,” *FDA Consumer*, January 1998.
- , “Nutrition Facts to Consumers Eat Smart,” *FDA Consumer*, May 1993.
- , “Labeling Rules for Young Children’s Foods,” *FDA Consumer*, March 1995.
- Levy, A. S. et al., “The Impact of a Nutrition Information Program on Food Purchases,” *Journal of Public Policy Marketing* 4:1-13.
- Light, L, et al,(1989), “Nutrition Education in Supermarkets,” *Family and Community Health* 12(1):43-52.
- Packard, V., *Processed Foods and the Consumer*, UMI Books on Demand, 1998.
- Pennington, J, et al, (1988) “In-store Nutrition Information Program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20:5-10.
- Porter, D and Robert O. Earl, *Nutrition Labeling : Issues and Directions for the 1990s*, National Academy Press, 1990.
- Segal, Marian, “Ingredient Labeling:What’s in a Food?,” *FDA Consumer*, May 1995
- U.K., Department of Health, *Food Safety Information Bulletin*, December 1997.
- , *Hungary Slimmers Safe from False Claims*, 8 October 1997.